

# 아시아에 있어서의 高等教育 研究動向

◇ 이 글은 日本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센터에 재직중인 ◇  
◇ 馬越 徹 교수가 同센터 刊行의 「大學論集」 第13集(1984 ◇  
◇ 年 12月號)에 寄稿한 내용으로 延世大 金蘭洙 教授가 ◇  
◇ 번역한 것이다. ……………〈編輯者 註〉 ◇

## I. 첫머리에

지난 수년간 구비 각국의 고등교육을 에워싼 環境은 냉엄함을 더해 가고 있다. 경제의 停滯에서 오는 예산의 삭감, 敎員의 定員 축소 등에 결들여서 18세 인구의 감소에 따르는 고등교육 규모의 축소 등 비관적인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 마치도 高等教育 擴大의 時代는 끝장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 日本이라고 해서 例外랄 수는 없다. 18세 인구만은 앞으로 7~8년 동안 일시적으로 急増期를 맞이한다고는 하더라도, 財政難에 따르는 예산의 삭감은 歐美 各국과 마찬가지로 大學運營을 가일층 냉엄한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에 눈길을 돌려보면 그 樣相은 환경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財政的으로는 밝은 展望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고등교육인구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中國本土나 韓國에서는, 지난 6~7년간에 고등교육인구는 2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TV 大學'(中國本土)이나 '開放大學'(韓國)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차레차레

登場하는 등, 革新的 試圖가 盛況을 이루고 있다. 東南亞諸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인구는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1978년에 설치된 泰國의 公開大學(Sukhothai Thammathirath Open University)은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해서, 1984년에는 新入生 87,741명, 전체 재학생 약 20만명을 헤아리는 거대한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국의 모델은 인도네시아에도 과급되어서, 1984년 9월에는 자카르타에 公開大學이 탄생했다. 또한, 이미 고등교육기관이 800校에 가까와서 '高等教育過剩' 機微의 필리핀에서도, 생애대학교(University of Life)의 創設이 보여 주듯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創出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각국에서는, 歐美에서의 高等教育의 沈滯와는 달리, 持續的 成長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시아 각국은, 고등교육이 성장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諸問題, 예컨대 증대하는 大卒者에게 합당한 職掌의 부족, 다양화하는 학생의 필요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등 量的 擴大의 成功에서 생겨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 行政側이나 大學人도 무던한 노력을 거듭 기

1) Philip G. Altbach, *Higher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p. 25.

울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의 高等教育研究는, 학술적(academic)이라고 하기보다는 問題解決을 목적으로 한 政策研究(policy study)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大學인이 政府의 委員會를 兼務하는 경우가 많은 東南亞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각국에서의 高等教育(研究)에 대한 試圖와 더불어,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사무소, 방콕 소재)나 ASEAN 地域 高等教育開發研究所(RIHED, 싱가포르 소재)와 같은 國際機關들도, 근년에 들어서서 고등교육 연구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前者는 1980년을 전후로 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망라해서 高等教育研究組織(세 개의 協同體制콘소시움으로 구성됨)을 형성하고, 1982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後者는, 創設 13년체를 맞이하여, ASEAN 지역 최대의 高等教育研究所로서의 움직일 수 없는 지위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 각국 및 國際機關에서는 高等教育研究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활동에 대한 紹介를 한 것은 볼 수가 없다. 高等教育研究라고 하면, 美國을 중심으로 한 歐美各國 研究者의 專賣特許인 양 생각해 오고 있다. 筆者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 각국의 高等教育機關을 방문할 기회를 갖는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一端을 소개하여 보고 싶다. 다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나라는, 紙面의 관계도 있어서 韓國, 中國本土, 泰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고 國際機關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太平洋地域 教育事務所 및 ASEAN 地域 高等教育開發研究所의 활동에 限定시켜서, 1983년에서부터 1984년에 걸친 研究動向을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한다.

## II. 各國의 研究動向

### 1. 韓 國

1980년대의 한국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課題는, 기본적으로는 '70년대에서부터 이어져 오

는 高等教育의 量과 質의 調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극력 억제해 온 量的 擴大는 이미 限界에 달하고, 제 5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한 '80년대는 단숨에 高等教育 大衆化時代에 돌입했다. 大學制度의 改編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斷行이 되고 있고, 주된 것만 보기를 들어도, ① 2~3年制 專門學校의 4年制 大學에로의 昇格(1979년) ② 2年制 教育大學의 4年制 大學에로의 昇格(1981년) ③ '入學定員'을 '卒業定員'制로 바꾼 일 ④ 大學入學者 選拔方法의 大改革('大學入學豫備試驗'과 '大學別二次試驗'을 組合한 方法에서, 이를 一體化시켜서 全國一律의 '大學入學學力考査'를 導入한 일)(1981년) ⑤ '開放大學'의 開設(1982년) ⑥ 2年制 放送通信大學의 5年制에로의 昇格 ⑦ "韓國學術振興財團"의 開設(1979년) ⑧ 改正憲法(1980년)의 教育條項에 '生涯教育'(한국에서는 '平生教育')의 振興規定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 연구의 면에서는 '80년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서둘러지고 있다. '70년대의 고등교육 연구는 文敎部 主導로 추진된 '實驗大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大學인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었다. 문교부내에 설치되고 있었던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의 委員(38명)이 中核이 되고, 전국의 대학인을 동원해서, 각종의 연구를 실시해 왔다. 實驗大學의 功過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論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거니와,<sup>2)</sup> 적어도 高等教育研究를 일부 전문가의 독점물에서부터 全大學人의 課題로 한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70년대의 高等教育研究는, '實驗大學'을 담당하는 中樞役으로서 문교부에 結集된 專門家集團(미국에서 Ph. D.를 취득한 教育學者 중심)이 主導權을 맡아 왔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高等教育研究의 '中心'에 移動이 생기고 있다. 첫째로는 '實驗大學'方式의 改革이 一段落을 지은 일과, 둘째로는 1982년에 公益社団法人으로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설립된 것을 들 수 있다. 결국 高等教育研究의 '中心'은 문교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移動한

2) 拙稿 "韓國實驗大學考", 「大學論集」第12集, 1983年, 67~84頁.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전국의 4年制 大學을 會員으로 “學事·財政·施設 등 主要關心事에 대해서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을 통해서 相互協力하고, 필요한 상황을 정부에 建議해서 政策에 反映시킴으로써, 大學의 自主성과 公共性을 높여, 大學教育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定款 第一條)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 되었다. 協議會에는 事務總長과 그 밑에 專門委員과 各部로 구성된 事務局을 두고, 동시에 대학의 學事나 行·財政制度를 연구하기 위한 研究委員會를 설치하는 일이 義務化되고 있다. 현재 1) 大學評價研究委員會 2) 大學財政研究委員會 3) 大學協同研究委員會 4) 教育大學發展研究委員會 5) 會誌編輯委員會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協議會는 1983년 1월, 隔月刊의 機關誌「大學教育」을 創刊하고, 현재 제11호(1984.9)까지 간행하고 있다. 備考特輯을 마련하여 고등교육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고등교육개혁동향을 공들여 소개해서 매우 매력 있는 專門誌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 쓴 英語論文도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特輯의 主題는 아래와 같다.

- 제 1 호(1983.1) 大學院, 大學 그리고 改革
- 제 2 호(1983.3) 敎養教育 그 實相과 座標
- 제 3 호(1983.5) 大學教育과 職業世界
- 제 4 호(1983.7) 大學敎授: 理想과 現實
- 제 5 호(1983.9) 大學의 學期制改編과 그 運營
- 제 6 호(1983.11) 大學財政, 그 診斷과 處方
- 제 7 호(1984.1) 大學의 自律과 責任
- 제 8 호(1984.3) 大學生의 現實과 理想
- 제 9 호(1984.5) 大學에서의 敎授戰略
- 제 10호(1984.7) 專門大學院, 그 現況과 改善
- 제 11호(1984.9) 大學院, 그 課題와 發展

한국에서의 고등교육 연구는, 이 協議會 외에 또 전국 54개 대학에 설치된 學生生活研究所 (學生指導研究所라는 명칭을 단 곳도 있다)나 17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敎育研究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敎育學會의 機關誌「教育

學研究」나 대한교육연합회의 機關誌「새교육」, 그리고 문교부의 研修資料「文教行政」(月刊) 등 에도 상당히 빈번하게 고등교육관련의 논문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특히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는 아직 高等教育을 專門으로 하는 學科는 탄생하지 않았고, 단지 私學의 名門 延世大學校 敎育科等 大學의 授業科目에 「高等教育論」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2. 中國本土

근래 中國의 고등교육계는 活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네 가지의 現代化’에 필요한 人材의 養成은 고등교육에 의존해야 할 일이 많은 것과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 1~2년 동안 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傾向으로서는, 廣島大學 大學敎育研究센터에게 中國의 각 대학에서 文獻의 依賴라든가 問談가 갑자기 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中國에서의 敎育關係視察團의 訪日도 늘어나고 있거니와, 많은 경우에 高等教育에 대한 關心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금년 (1984년)에 걸쳐서 中國社會科學院, 北京大學 亞非(아시아·아프리카)研究所, 中國敎育部副部長一行, 北京師範大學 등의 視察團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고, 日本高等教育(研究)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高等教育에 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象徴하듯이, 요즘의 中國 본토에서는 高等教育研究가 일종의 붐으로 되어 가고 있다. 작년 (1983년)에 간행된 「中國高等學校簡介」(敎育科學出版社, 690頁)에는 中國의 고등교육기관 675校가 상세히 소개되는 것과 아울러, 전체적인 統計資料도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中國敎育報」라고 하는 敎育專門의 週刊紙가 창간되어, 고등교육관계의 記事가 많이 실리게 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大學에는 거의 ‘高等教育研究室’이 설치되어 있어서, 大學改革에 寄與하는 것을 목적으로 自國의 高等教育이나 外國의 高等教育에 관한 研究가 精力的으로 추진되고 있다. 北京市內만 보더라도 30개 대학에 高等教育研究會라든가 高等教育研究

3) 「北京地域高等教育團體, 机构一覽表」참조.

실이 설치되어 있다.<sup>3)</sup> 그 가운데서도 北京大學의 高等教育研究室은 ‘中國高等教育’, ‘高等教育比較研究’의 2개 部門으로 짜여져 있고, 1981년에는 「高等教育研究」誌를 창간하고 있다. 그 제 1호에 수록된 論文의 題目들은 다음과 같다.

1. 經濟成長에 寄與하는 教育的 役割
2. 人材投資의 巨視的 效果
3. 高等教育構造의 改革
4. 建國以來의 文科系高等教育的 經驗과 課題
5. 中國에 있어서 文科系高等教育的 強化와 그 意見
6. 大學에 있어서 物理學實驗의 充實
7. 抗日期에 있어서 國民黨統治區의 高等教育
9. 유고슬라비아의 高等教育에 관한 考察

또한 같은 北京大學亞非研究所에서는 永井道雄氏의 「日本の 大學」(中公新書, 1965년)이 張俊彥 教授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있다. 전에 廣島大學과 姉妹關係를 맺은 華中工學院에도 高等教育研究室이 있고, 朱九思學長의 「高等學校(大學)管理」(1983년 5월)를 비롯하여 高等教育에 관한 수많은 간행물이 나오고 있다. 1984년 3월에는 「高等教育研究」를 創刊했다. 또한 東北師範大學도 「高等教育資料」를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上海地域에서는 華東師範大學을 중심으로 하여 高等教育研究會가 조직되어 「上海高教研究叢刊」을 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3년 5월 29일에는, 전국의 高等教育關係團體를 大同團結하여 “中國高等教育協會”가 北京에서 발족하고 있다. 會長에는 前清華大學長이었던 蔣南翔, 副會長에는 何東昌(現教育部長)이 취임한 일로 미루어 보아도 同協會의 의욕찬 모습을 感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高等教育’의 명칭은 붙이고 있지 않으나 北京師範大學 外國教育研究所에서는 「外國教育動態」誌가 간행되고 있고, 每號의 高等教育欄에는 日本이나 歐美各國의 高等教育動向이 소개되고 있다. 1984년 제 1~2期號(1月, 3月)에는 畢繼萬 “英美高等教育的 比較研究”, 王永福

“프랑스繼續教育的 基本的 特質”, 沈釗源 “美蘇에서의 學位의 對等問題”, 陳樹清 “아메리카 大學敎師의 昇進制度”가 실리고 있다. 또한, 中央教育科學研究所의 機關誌 「教育研究」(月刊)에는 高等教育關係의 論文이 紙面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最新號(1984년 8월호)에는 劉道玉 “高等教育的 經濟的 收益을 높이기 위한 2~3의 問題”, 梁柱 “北京大學의 革新과 蔡元培”, 朴奎勳 “少數民族高等教育的 敎學用語의 再檢討” 등의 論文들을 엮을 수 있다.<sup>4)</sup>

이러한 諸研究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국 본토에서의 高等教育研究의 特色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圈의 高等教育보다는 日本이나 歐美 등의 自由主義圈의 高等教育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研究題目은 學術的(아카데미)인 것이기보다는 實踐志向의이고, 당면하는 大學問題의 解決에 관련된 것이 많다.
3. 分析方法으로서는 社會學的, 教育經濟學的의 接近方法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外國理論을 소개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自國(中國)의 高等教育에 관한 實態調査나 顯的·統計的 分析을 행한 研究는 매우 적다.
5. 高等教育研究는 各學問分野의 專門家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高等教育을 專門으로하는 研究者는 많지 않다.

### 3. 泰 國

태국의 고등교육은, 1972년에 大學廳(office of University Affairs, 현재는 省 ministry로 昇格)이 개설된 이래로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成長과 多樣化(growth and diversification)”의 길을 밟고 있다. 高等教育體制는 일종의 二元制를 취하고 있다. 첫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大學省所管의 國立大學 14校와 私立大學 11校를 포함하고 있고, 學位認定을 目的으로 한

4) 中國의 高等教育研究의 動向을 집필함에 있어서, 大塚豐氏(國會教育研究所)에게서 귀중한 情報을 提供 받았다. 同氏의 執筆로 된 「中國의 高等教育」(『現代의 에스프리』No. 205, 1984년 8월號)는 中國高等教育의 全貌를 전하는 最新의 力作이다.

고등교육기관이다. 둘째 범주의 것은 教育省 및 他省所管의 각종 고등교육기관 118校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십수년간 高等教育의 擴大를 지탱해 온 것은, 국가측의 人力需要(manpower needs)와 국민측의 고등교육기회 요구(social needs)가 서로 結合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經濟不況 등의 영향도 있고 해서, 大卒者의 失業問題가 浮刻되고 있다. 東南亞諸國의 高等教育에 共通의으로 볼 수 있는 '成長의 딜레마'에 태국도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隔月마다 개최되는 全國學長會議(Rector Conference)에서 다루어지며, 入學者選拔方法이나 大學生入學定員 등에 관한 調整이 圖謀되고 있다. 또한 總理府 所管의 國家教育委員會(National Education Commission)에는 그 分科委員會의 하나로 "高等教育과 雇傭問題"가 설치되어 研究活動을 개시하고 있다.<sup>5)</sup>

이들 政府次元의 高等教育研究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泰國의 最高學府 查拉崙崙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高等教育學科」(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의 활동이다. 이 學科는 1977년 同大學 教育學部(Faculty of Education)의 大學院課程(master degree course)으로 출발하고 있다. 學生의 入學資格은 ① 專門分野는 가리지 않으나 學士號(bachelor degree)의 所有者이며 ② 高等教育機關에서 적어도 3년간의 教育·行政經驗(work experience)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이 高等教育學科는 大學教員 및 大學行政官 등의 專門的 資質向上을 목적으로 설립된 大學院課程이다. 「大學案內」<sup>6)</sup>에서 보면 同學科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專門的 知識과 價値規範을 지닌 人材의 育成 특히, 教授法의 改善, 커리큘럼의 開發과 運營, 大學의 管理運營

과 學生問題 등에 精通한 人材의 育成

2) 고등교육 연구의 성과를 전국의 대학에 보급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시키는 일

3) 고등교육 관계자의 지식과 경험을 늘림으로써 研究나 教育의 質的 向上 圖謀

4) 고등교육에 관련된 모든 知識이나 情報의 中心處로서의 機能

이상과 같은 목적 아래 구성된 碩士課程의 커리큘럼은 매우 다채롭고 풍성하다. 2년간에 걸쳐 코스워크(course work) 36單位, 論文(thesis) 12單位 取得이 필요하다. 開設되어 있는 授業科目은 ① 必須科目 6과목 ② 選擇科目 47과목(다음 네 개 領域으로 짜여져 있는데, A. 커리큘럼과 教授, B. 學生서비스, C. 高等教育行政, D. 高等教育基礎論) ③ 關聯科目 4과목, 計 57과목을 헤아리고 있다. 教授陣은 教授, 助教授를 포함해서 9명으로 짜여졌으며 그 중 8명은 미국의 大學에서 高等教育分野의 學位(Ph. D. 또는 Ed. D.)를 취득하고 있다.<sup>7)</sup> 同學科에서 碩士學位를 취득한 사람들은 전국의 대학에서 大學教員의 研修事業(staff development)의 核으로 일하고 있다.

#### 高等教育學科 開設 授業科目

#### Required Courses

- Principles of Higher Education
- College Teaching Behavior
-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 Colleges Students
- Supervised Professional Experiences in Higher Education
- Seminar in Higher Education

#### Elective Courses

- Group A: Curriculum and Teaching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 Principles of Curriculum Development

5) 1984년 8월 3일,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의 所長 Pote Sapianchai 氏와의 인터뷰에 의한다.

6) Brochure of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1983 및 Graduate School Announcement: 1984~1985, Chulalongkorn University.

7) 이에 관련해서는, RIHED의 다큐멘테이션 센터에 蒐集되어 있는 泰國人에 의해서 쓰여진 高等教育에 관한 Ph.D.論文(Ed.D.도 포함)은 65점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대부분은 美國의 大學에서 취득한 것이다(1點단이 영국의 런던大學).

Psychology of Adult Learning  
 Instructional Innovations and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Programmed Instruction  
 Higher Education in Thailand  
 Foundations of College Teaching  
 Teacher Education in Thailand  
 Principles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n Teacher Education  
 Seminar in College Teaching  
 Seminar in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Seminar in Teacher Education

Group B: Student Personnel Services

Social Psychology  
 Theories and Techniques of Counseling  
 Guidance in Higher Education  
 College Student Problems  
 Student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Student Records and Admissions  
 College Student Personnel Services  
 Seminar in Student Personnel Work

Group C: Administration in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eacher Education  
 Administration in Higher Education  
 Personnel Administration in Higher Education  
 Financing Higher Education  
 Health Administration  
 Planning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Systems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al Research  
 Project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mmunity Relations  
 Community Colleges  
 Private Colleg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ing Profession  
 Academic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Group D: Foundations of Higher Education

Social Foundations of Educatio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Group Dynamics in Education Settings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Comparative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Ethics of Personnel in Higher Education

Sociology of Higher Education  
 University Extension  
 Individual Study  
 Selected Topics in Higher Education  
 Workshops in Higher Education

Related Courses

English of Graduate Students  
 Statistics Applied to Behavioral Sciences  
 Fundamentals of Behavioral Research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이상과 같이 켈라론콘大學의 高等教育學科의 組織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고, 教授陣의 質도 높다. 그러나 필자가 見聞한 바로는, 高等教育關係의 圖書은 빈약하고 教授陣도 授業時에 大學에 나오는 정도로서, 대학이 研究의 場으로는 되어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발표된 고등교육관계의 논문들도 반드시 많다고 할 수는 없다. 研究面에서는 이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필리핀

필리핀 고등교육의 最大의 課題는 뭐라고 하더라도 '質(quality)'의 向上에 있다. 고등교육의 보급이라는 면에서 보면, 800校에 가까운 고등교육기관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사실에서 분명해지듯이, 필리핀은 亞細亞有數의 高等教育普及國이다. 그러나 初等教育(6개년), 中等教育(4개년)의 年限이 둘을 합쳐서도 1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教育制度上的의 問題도 있고 해서, 大學教育의 水準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필자가 면접한 大學敎員의 多數는 學部教育의 1~2년이 일종의 補習教育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결같이 한탄하고 있었다. 또한 한층밖에 되지 않는 有名大學을 제외하면 대학으로서의 施設·設備은 빈약하고, 특히 理工系分野의 不振이 눈에 띈다. 더우기 高等教育人口의 85%가 私立大學에 在學하고 있는 '私學依存體質'이 필리핀 고등교육의 質的 水準에 큰 문제를 던지고 있다. 政府直轄의 국립필리핀大學과 教育文化스포츠省(Mini-

8) Higinio A. Ables, *Bulletin of the UNESCO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Philippines*, No. 24, Apr., 1983, p. 55.

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MECS) 적할하에 있는 그 밖의 大學과의 사이에는 財政面을 비롯한 큰 格差가 벌어져 있는 일 등도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 들고 있다. 참으로 “필리핀 高等教育의 키워드(keyword)는 質(quality)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에 있어서의 高等教育研究는 대체로 質의 問題에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關心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은, ① 大學敎員의 敎授能力의 향상(staff development) ② 커리큘럼의 開發 ③ 施設·設備의 확충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研究課題들은 教育文化스포츠省 高等教育局(MECS, Bureau of Higher Education)의 最重點課題로 되어 있고, 高等教育局이 主役을 취하면서 그 改善에 노력하고<sup>9)</sup> 있다. 이와 같이 필리핀의 高等教育 연구는 당면한 問題解決에 目的을 둔 상당히 實踐性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카데미한 관심에서 高等教育研究를 전문으로 하는 研究者集團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高等教育研究의 據點(센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學部長이나 學科長 등 管理職的 立場에 있는 각 영역의 專門家들이 각종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高等教育研究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필리핀의 現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은 1982년의 教育法(The Education Act of 1982)에 教育文化스포츠省 內에 “高等教育委員會(Board of Higher Education)”를 설치하는 일이 規定된 점이다(제60조). 同委員會는 4인의 有識者와 MECS 高等教育局長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① 全高等教育體系의 計劃과 管理 ② 全高等教育機關의 管理運營 ③ 高等教育財源의 確保와 配分 등에 관해서 MECS 長官에게 권고하는 權限과 責任을 갖도록 되어 있다. 1984년 현재 同委員會는 發足を 하지 않고 있으나 高等教育局은 그 機能을 강화해서 委員會의 발족에 대비하고 있다. 同委員會가 正式으로 발족하면 政策

的인 高等教育研究가 發動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이 된다. 또 하나의 움직임으로는, 1982년의 教育法施行規則(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Act of 1982)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質’改善을 위해서 아크레디테이션 시스템(accreditation system)의 導入이 권고되고 있는 점이다(제 4 조 제1~6항).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으로 私立大學의 質的 水準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文教當局의 움직임에 호응해서, 요즘의 필리핀 高等教育界에서는 각 學閥分野마다의 學會나 協會가 주최해서 커리큘럼開發을 위한 워크샵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 一般教育의 코아프로그램(敎養教育의 中核課程프로그램)의 開發도 그러한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高等教育局의 후원에 의한 大學敎員의 研修事業(staff development)도 각 분야마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하나 革新的 試圖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1980년에 설립된 生涯大學(University of Life)의 발전이다. 同大學은 이멜다 마르코스 대통령부인을 理事長으로 하고, ‘學位’授與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애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世界는 敎室이며 人生의 經驗은 敎師이고, 사람과 그 社會는 커리큘럼이다”<sup>10)</sup> 라는 구호 아래 ① 家庭學習프로그램 ② 勞働者技能訓練 프로그램 ③ 컴퓨터教育 ④ 스포츠 코스 ⑤ 經營코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순조롭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敎育의 方法도 敎室에서의 敎師에 의한 講義와 實習指導뿐 아니라, 敎材의 郵送에 의한 遠隔敎育의 方法을 大幅으로 넓어 가지고 彈力化되고 있다. 學習期間도 1~2개월의 短期의 것에서부터 1~2년의 長期에 걸치는 것까지 다양하다. 入學資格은 ① 英語의 諳解力이 있는 者 ② 高等學校 卒業程度의 學力이 있는 者 ③ 指導性이 있는 者 ④ 協調性이 있는 者 ⑤ 創造性이 풍부

9) MECS, Bureau of Higher Education, Annual Report, 1983.

10) A Guide of the University of Life, 1984.

한 者 등으로 되어 있지만 코스에 따라서는 다른 入學者選拔(考査, 面接)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캠퍼스에는 독특한 設計의 管理棟 외에 10층 건물의 寄宿舍(2,000명 收容)가 있고 각종의 훈련 코스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生涯大學은 그 명칭이 표시하듯이 독특한 高等教育 수준의 생애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高等教育은 1979년에 도입된 新教育體系下에 순조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12년의 初等·中等教育(6—3—3)에 이어지는 第3段階 수준의 교육(高等教育)은 4년의 Sarjana 課程(第1學位), 2년의 Pasca Sarjana 課程(第2學位), 2년의 Doctor 課程(第3學位)로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각각의 課程에 單位制度(credit system)가 채용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制度의 改革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高等教育體制는 일단 整備가 진행되고, 최근(1980년 이후)에는 전국의 10개 대학에 있어서 大學院水準의 Pasca Sarjana 課程이 始動을 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이 정부는 全國大學院教育審議會를 설치하고 大學院教育의 充實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高等教育發展은 政府主導型으로 진행되고 있다. 高等教育研究에 대해서 보다더도 高等教育을 專門으로 하는 研究者集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教育文化省의 高等教育總局(Directorate General of Higher Education)이 主導權을 잡고 그 振興과 調整을 맡고 있다.

後述하는 유네스코 高等教育研究 콘소시움(consortium)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해서 加盟하고 있는 세 大學(인도네시아대학, 반둥공과대학, 보골농과대학)도 高等教育總局과 밀접한 협력 아래 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歷代

의 高等教育總局長에 이들 대학의 교수들이 임명되어 왔던 일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까닭이야 어떠하든 인도네시아의 高等教育研究는 上記의 '據點校'에서 자그마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우선 보골농과대학의 경우, 大學院長인 Edi Guhardja 教授가 중심이 되어서 지난 수년간 전국 28개 대학의 農學系敎員(2000명)의 業務量(work load) 調査를 행하고 있다. 同調査에는 보골農大의 敎員뿐 아니라, 高等教育總局의 要員과 위스킨신大學의 교수도 참가하고 있다. 調査의 목적은 農學系敎員의 業務量(敎育, 研究, 社會서비스)의 輕減과 農學系新規敎員定數의 確保에 두고 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調査를 다른 專門分野에도 넓혀 나가는 일이 계획되고 있고 우선은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서 理學系敎員의 業務量 調査를 행할 豫定이다.<sup>12)</sup>

다음에 반둥工科大学에서는 1976년 이래 和蘭의 Twente University의 협력을 얻어서 化學工學敎育의 改善에 착수하고 있다. 제 1 단계에서는, ① 인도네시아語로 된 敎科書의 작성 ② 講義方式에서 討義方式으로 ③ Modular System의 도입 ④ 問題解決學習의 장려 ⑤ 暗記學習에서 方法學習으로 ⑥ 評價法의 확립 ⑦ 實驗作業의 개선 등을 主題로 '分析化學'과 '物理化學'의 두 코스에서 實驗的으로 上記의 改革을 실시하였고, 제 2 단계에서 이들 主題를 同大學의 化學工學科全體(15코스)에 適應시켰다. 1981년에서부터는 전국의 11개 대학에서 化學工學科의 敎員 20명을 초청해서 2週間の 워크숍을 개최해서 반둥工大의 成果普及(dissemination)에 힘썼다. 이러한 프로젝트方式이 屢次한 反響을 불러일으켜, 앞으로는 제 4 단계로서 他學科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大學敎育改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만 할 것이라는 氣運이 높여져 있다.<sup>13)</sup>

또한 최근 들어 주목해 보아야 할 움직임으로

11) D.A. Tisna Amidjaja,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Indonesia, 1983.

12) 보골農科大学는 1984년 봄에 第一次 調査報告書(인도네시아語, 48頁)를 간행하고 있다.

13) Kees Ruijter & Tjipto Utomo, "Th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in Indonesia: A Project Approach," Higher Education, 12(1983), pp. 273~278.

서는, 1984년 9월 遠隔教育에 의한 大學教育機關으로서, 第1學位(Sarjana)課程을 가진 公開大學(University Terbuka=Open University)이 創設된 일을 附加해 놓지 않을 수 없다.

### Ⅲ. 國際機關의 研究動向

#### 1. ASEAN 地域 高等教育開發研究所(RIHED, Region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이 研究所는 아시아지역에서 高等教育研究를 目的으로 설치된 少數의 本格的 研究所의 하나이다. 명칭에서 분명해지듯이 RIHED는 ASEAN 諸國이 共同出資해서 운영되고 있는 地域協力 機構이며, 여기에 UNESCO, SEAMES, IAU, ASAIHL 등의 國際機關이 協贊해서 설립된 것이다. 運營委員會의 멤버 구성도 ASEAN 5개국과 국제기관이 균형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同研究所의 特色은 ASEAN 諸國의 高等教育政策形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研究를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政策研究를 人的面이나 資金面에서도 國際協力體制에 의해서 추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다.

작년(1983년)말 舊싱가폴大學 構內(부기데마 캠퍼스)에 移轉을 완료한 RIHED는 아름다운 綠陰丘陵의 一角에 위치하고 있다. 創設 13년을 맞이한 RIHED는 'ASEAN 地域 最大'의 高等教育研究所로서의 地位를 不動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SEAN 地域 最大'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스텝(staff)의 數 때문이 아니다. 전임스텝은 所長을 포함하고서도 고작 5~6명에 지나지 않는다. 'ASEAN 地域 最大'가 되는 것은 이들 스텝을 中心으로 형성되어 있는 研究者의 네트워크(network)와 그 規模, 거기에서 생산되는 研究成果의 量, 그리고 그것을 支援하는 충실한 라이브러리(資料센터)의 存在이다.

아직까지의 研究活動의 實施方法을 보면, 우선 최초로 '地域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ASEAN 지역의 高等教育이 當면한 政策課題를 밝혀놓고, 그것들을 받아들여 각각의 政策課題

를 各國別의 研究프로젝트로 조직한다. 다음에 이들 프로젝트의 成果를 各國別의 세미나에서 再檢討한다. 마지막으로 研究成果로서 그것들을 公表해서 政策立案의 資料로 삼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세르바라도남所長(1984년 9월부터 Higher Education Unit of Commonwealth Secretariat에 轉任)에 의하면 그러한 研究를 추진할 때에 가장 重視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研究의 社會的 關連性(relevance), 둘째로 國情에 맞는 研究(indigenization), 셋째로 地域的·國際的 協力에 의한 研究(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

최근의 워크숍으로서 RIHED와 ARTEP (Asian Regional Team for Employment Programme)가 共同으로 1983년 12월 13~15일에 개최한 "아시아諸國에 있어서의 人力計劃"이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日本에서 潮木守一氏, 西獨에서 윌릿히 타이라氏가 참석하였다.

RIHED의 研究成果로서는 아직까지 64點의 報告書(單行誌스타일)가 간행된 외에도, 뉴스레터(RIHED Bulletin)가 年 4회(700部) 발행되고 있다. 이들 出版物의 編輯은 新聞記者 출신의 Chris Yap氏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매우 세련되고 보는 눈도 즐겁다.

RIHED를 말할 때, 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은, ASEAN 지역 協力體制의 關鍵이 되는 라이브러리(資料센터)의 役割이라고 본다. 유능한 文獻管理者인 Nambiar 嬢의 지도 아래에 실로 效率的인 運營이 되고 있다. 그 도서관에서 가장 充實한 것은 무어라고 하더라도 ASEAN 각국의 高等教育情報이고, 그것들이 各國別로 分類整理되어 있다는 것은 利用者에게 고마운 일이다. 이러한 文獻管理(documentation)活動의 一環으로서 近年 힘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서는, ASEAN 지역의 高等教育文獻目錄의 刊行이 있다. 1980년에 간행된 *Higher Education in the ASEAN REGION-A Preliminary Bibliography*, 92면에 이어서 최근 *Higher Education in Malaysia-A Bibliography*, 198면이 간행되었다. 또한 ASEAN 이들에 이어서 싱가포르, 泰國, 인도네시아의 編輯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AS

EAN 지역의 研究者總覽(Directory of Scholars)도 현재 편집의 최종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RIHED가 앞으로 하여야만 할 研究課題로서는 세르바라도남所長이 최근 집필을 마친 長文의 報告書「高等教育改革에 있어서 地域協力の 觸媒—RIHED의 事例」<sup>14)</sup>(英文)에서 지적하고 있는 ① 高等教育의 擴大와 大卒失業, ② 高等教育과 頭腦流出 등의 문제들이라고 본다.

## 2. 유네스코 아시아太平洋地域 教育事務所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and Pacific, 방콕 소재)

유네스코 아시아太平洋地域教育事務所가 教育情報의 센터로서 아직까지 중요한 구실을 다해 온 일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高等教育에 관해서 보면, 그 도서관에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高等教育文獻이 網羅의으로 收集되어 있다. 또한 그 機關誌(Bulletin)의 최근호(1983년 4월, 제24호)에는 “아시아太平洋의 高等教育”을 特輯으로 하고, 그 卷末에는 유네스코 事務所가 所藏하고 있는 過去 5년간(1978~1982)에 발표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高等教育에 관한 文獻目錄이 곁들여 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는 高等教育에 관해서도 확실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 10년간의 力點은 워라 하더라도 APEID(Asian Programme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事業에 놓여져 왔다. 이것은 加盟各國이 教育革新(Educational Innovation)을 위한 諸事業을 共同으로 企劃立案·實施評價하기 위한 조직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APEID 事業의 內容은 初等·中等教育이 중심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70년대를 통해서 유네스코는 高等教育事業에 積極의으로 노력하여 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978년에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 오세아니아地域 文部大臣會議에서는 ‘高等教育革新’을 촉진하기 위한 地域協力事業을 스타트시킬 것을 勸告함에 따라 유네스코는 高

等教育事業에 本格的으로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同事業은 1) 共同 研究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加盟各國의 高等教育機關으로 구성된 consortium(consortium)을 형성한다, 2) 研究의 目的은 革新的 經驗의 교류, 敎員研修(staff development)의 촉진, 高等教育의 管理나 情報시스템의 改善에 둔다, 3) 研究資金은 유우엔開發計劃(UNDP)에서의 援助로 한다 등을 골격으로 하여 스타트하기로 되어 있다.

각 consortium의 명칭과 個別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第1 consortium(「高等教育의 革新」)

- 1) 遠隔教育(distance education)
- 2) 高等教育의 質—커리큘럼改革
- 3) 高等教育의 質—大學敎員의 質 向上
- 4) 大學의 社會開發에의 參加

### 第2 consortium(「高等教育政策·計劃·管理」)

- 1) 高等教育에 있어서 公平의 達成
- 2) 大學의 自己評價—國家發展에의 有效性和 관련시켜서
- 3) 高等教育 情報시스템의 開發—政策形成과 관련시켜서
- 4) 高等教育 計劃·管理運營 人材의 育成
- 5) 高等教育 管理 및 連絡調整시스템

### 第3 consortium(「特別調査·研究」)

- 1) 人的 資源과 開發
- 2) 高等教育의 質과 公平
- 3) 大學敎員의 任用과 研修
- 4) 高等教育機關의 質과 效率
- 5) 高等教育과 女性
- 6) 高等教育에의 投資와 成果

1984년 7월, 第1 consortium에는 15개국에서 36 機關이 참가하고 있다. 泰國의 스키타이 다마치라도 公開大學(STOU)이 主導機關이 되어 ‘遠隔教育’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1982년 8월 31일~9월 7일간에는 第1 consortium의 全體會議이 개최되어 遠隔教育方式의 高等教育을 中心課題로 한 研究의 방향지움이 검토되었다.<sup>15)</sup>

14) V. Selvaratnam, *A Catalyst for Reg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The RIHED CASE*, 1984.

15) 이 會議에 日本에서는 大學教育研究센터의 松永裕二 助教(現在 西南學院大學講師)가 출석했다. 會議의 報

1983년 9월 6~16일에는 '遠隔教育'에 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또한 이 콘소시움의 최근 활동으로서는 뉴스 레터—*Never Too Far*(Vol. 1, Oct. 1983—Vol. 3, July 1984)라든가 *UNESCO, Resource Materials Used in Distance Teaching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1984, p. 44의 刊行을 들 수 있다. 이 콘소시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主導機關으로서의 STOU의 學長 Dr. Wichit Srisa-an 氏에게 힘입는 바가 크다.

第 2·3 콘소시움은 1983년 2월 28일~3월 5일간의 全體會議를 거쳐서,<sup>16)</sup> 현재 각종의 연구 계획이 進行중이지만, 第 2 콘소시움에 관해서 보면, 최초의 구체적 활동으로서 1984년 11월 5~16일에 오스트레일리아 University of New England가 主導校가 되어서 “高等教育 計劃·管

理運營人材의 育成(staff development)”을 테마로 워크샵이 개최되게 되어 있다. 第 2 콘소시움에 加盟되어 있는 것은 12개국 25개 기관이다.

또한 第 3 콘소시움은 國立필리핀大學이 主導機關이 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1984년 9월 15~19일에 同 大學(케이손市)에서 제 1 회 專門家會議가 개최되어, 금후의 具體的인 研究計劃에 관한 協議가 行해졌다. 廣島大學의 大學教育研究센터는 1984년에서부터 第 3 콘소시움에 加盟하고 있고, 그 最初の 活動으로서 1985년 1월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高等教育專門家(8명)를 초대해서, 유네스코와 共同으로, 國際세미나(主題는 Prospects and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Expansion)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이들 콘소시움 事業은 그 첫 실마리를 얻 정도이지만, 今後의 發展이 크게 기대된다. \*

告 告는 유네스코에서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Report of a Consortium Meeting on Innovation, 1982, p. 37로 刊行된다.

16) 이 會議에는 日本에서 東京大學의 天野郁夫 教授가 出席했다. 그 報告서는 유네스코에서 Consortium on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 and Special Studies in Higher Education—Report of the Joint Meeting, 1983, p. 51로 刊行되고 있다.